

# D. H. Lawrence의 *Women in Love* 연구

—技術時代의 문제와 관련하여—

白 樂 晴

(英文科 副教授)

## I. 序 論

Ⅰ 이 글은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D.H. Lawrence, 1885~1930)의 장편 『연애하는 여인들』(*Women in Love*)을 주로 ‘기술시대’의 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고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적’인 문학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입장에서 주체적인 연구는 제3세계의 입장에서 서는 연구라야 한다고도 말하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문학을 제3세계 문학의 일부로 볼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학과 제3세계적 관점에서 읽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다운 주체성이 아닌 ‘주관주의’로 떨어지거나 어쩔 수 없는 상대성의 고백으로 되지 않으려면, ‘제3세계적 관점’의 선택이 어디까지나 진실의 추구를 위한 것임이 명백해져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서구문학의 진실도 제3세계적 관점에서 읽음으로써 더욱 충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내가 제3세계에 사니까 제3세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말겠다는 자기방어 행위 이상은 못 되는 것이다.

제3세계의 관점이 서구문학에 관해서도 진실추구의 요건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제3세계’를 단순한 지역개념으로 보지 않고 범세계적 인간해방을 이룩해가는 역사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해진 개념, 말하자면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기보다 하나로 묶어서 보며 다만 종전의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진실되게 보려는 역사적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미·소 두 초강대국의 문학이나 유럽·일본 등의 문학과도 이러한 인류의 대의에 동참하는 한 얼마든지 ‘제3세계적’ 성향을 띠 수 있다. 또, 실제로 제3세계의 사상·이념이 유럽이나 미국 등의 문화에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정신활동의 물질적 기반을 무시하려 하지 않는 이상,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문학이 제3세계의 문학과 다름없이 제3세계적일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한 다. ‘제3세계’가 단순히 지구상의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고는 하더라도, 자

1) 이러한 제3세계의 개념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拙著, 1979,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서울: 시인사, 「제삼세계와 민중문학」 178면 참조.

첫 력공중에 뜬 빈말이 될 위험도 경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로렌스를 낳은 영국 내지 유럽, 그리고 그 문학은 제3세계론에 의하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볼 것인가? 로렌스문학에 대한 '제3세계적' 이해를 피하기 위해 앞서 이 점을 먼저 밝히려 할 필요가 있겠다. 알다시피 미국과 서구의 선진공업국들이 모두 제1세계에 속한다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유럽의 위치를 달리 설정하는 학설도 있다. 즉 이제는 동·서 양대진영의 냉전체제에 대한 역사적 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오히려 '남·북 문제'가 더욱 핵심적인 과제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학자들은 미·소 두 초강대국과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이 오늘의 세계에서 맡은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제1세계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곳이지만 현재로서는 '제2세계'에 속한다고 보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본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고——동구 여러나라들이 소련과 그러하듯이——또 제3세계에 대해 지배자·수탈자의 위치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제1세계와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며 제3세계와의 관계도 훨씬 애매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이다.<sup>2)</sup> 곧, 한 사회 안에서의 '중간집단'이 흔히 그렇듯이 이들은 대체로 기성체제에 안주하고 지배층에 동조하지만 지배계층 그 자체는 아니며, 말하자면 '양다리걸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차대전 이후 한동안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토대로 초강대국의 하위동업자로 남으려던 꿈은 헛된 것임이 밝혀졌고 이제 유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 모로 '제2세계'다운 진로로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면에서 미국을 크게 앞지를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영국 노동운동의 전통이라든가 오랜 제국경영을 통해 거두어 들었던 자산에 힘입은 바 크지만, 한 사회 안에서의 유족한 중산층이 집권자나 최고경영자보다 훨씬 안락하고 착실한 생활을 하기 쉽다는 논리와도 일치하는 상황이다. 특히 문화적 풍토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기타 서구국가들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미국하고는 현저히 달랐고 냉전체제의 청산을 위해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전세계에 걸친 민중역량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고 서구 지식인들의 독자적 업적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 지식인들이 냉전의 해소를 위한 역할을 떠맡았다는 사실 자체는 오늘의 세계에서 유럽이 종전과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에 근거한 것이다. 1차대전은 거의 유럽에 국한된 전쟁이었고 2차대전도 그 원인이나 결정적 전투가 유럽에 쏠려 있었는데, 그것은 2차대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세계경제와 정치의 심장부에서 벗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제2세계'로서의 서구는 세계사의 행방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잃어

2) '냉전시대'에서 '다국화시대'로 옮겨오며 유럽의 대미관계가 전갈지 않아진 데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유럽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초강대세력을 형성해가고 있어서 제3세계의 입장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내다본 Johan Galtung, 1973, *The European Community: A Superpower in the Making*의 견해가 특이한 것인데, 필자로서는 이러한 예측이 객관적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는 Tom Nairn, 1977,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Ch. 8: "Supra-Nationalism and Europe")의 반론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버렸고 초강대국들의 싸움에 끼여들어 희생물이 될 이유가 희박해졌다. 따라서 열전 또는 냉전의 수행에 필요한 사상과 정서에 대한 사회의 수요도 그만큼 적어진 것이다. 미국보다 유럽 또는 일본의 문화풍토가 제 3세계에 대해 좀더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어느 서구국가의 정치·경제 정책이나 문화풍토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제 3세계론에 의거해서 살펴볼 때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제 3세계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2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올바른 자기인식을 위해서도 스스로가 일단 제 3세계의 관점에 서볼 필요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② 위대한 문학작품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서구문학의 고전들도——그것이 진정한 고전인 한에서는——전세계 민중의 공동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전세계 민중’ 또는 ‘인류’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도중이고 이러한 시대의 관점에서 ‘진정한 고전’이 어떤 것이 될지를 밝혀 나가는 과정일 따름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구문학의 성격을 제 3세계론에 비추어 좀더 꼬집어 말해 본다면, 우선 그것은 제 2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의 문학이요 문화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물론 작품 자체로서는 전세계 독자들 누구나가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제 2세계 나라들의 국민문학 내지 민족문학이며, 그 본고장에서의 수용과 연구·비평이 그들 자신의 제 2세계적 입장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구문학의 고전들은 그 자체로서도 오늘날 제 1세계적 이념의 연원을 이루는 측면과 제 3세계적 인식의 전거로 되는 측면을 아울러 갖추고 있지만, 특히 서구문학의 비평·연구에서는 지배자의 논리에 순응하고 이를 세련화시켜 주기도 하는 오늘날 제 2세계 지식인 대다수의 기능과, 인간해방의 대의에 봉사하려는 그들 중 탁월한 소수의 노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3세계의 민중들로서는 이러한 복합적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그야말로 知彼知己의 중대한 과제이며, 제 2세계 민중들의 정당한 자기인식을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표현으로도 될 수 있다.

예전대 로렌스의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학에서의 리얼리즘 문제는 우리 문단 뿐 아니라 제 3세계 전역에 걸쳐 깊은 관심사로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미국보다 유럽의 학자·평론가들이 훨씬 진지하고 수준높은 논의를 보여준 것도 제 3세계론에 따르면 우연이 아니다.<sup>3)</sup> 우리 문단에서 이제까지의 리얼리즘 논의들은 첫째 말자고, 톨스토이 등 19세기 대가들의 리얼리즘을 자연주의나 이와 대동소이한 자칭 리얼리즘 유파들과 구별해야 하고, 둘째 자연주의에 이어 서구와 미주의 새로운 지배적인 예술조류로 군림한 모더니즘

3) 제 3세계 문학에서의 리얼리즘 문제에 관해서는 위의 줄고 「제삼세계와 민중문학」 참조. 70년대 한국문단의 리얼리즘 논의는 任軒永編, 1976, 文學論爭集(韓國文學大全集, 서울: 太極出版社, 附錄 I)에 대부분의 자료가 실려 있다.

도 진정한 리얼리즘으로부터의 쇠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세계 그렇다고 1930년대 중반 소련공산당이 채택하고 소련정부가 관료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제3세계 문학의 正道일 수도 없다는 점들을 주로 규명해왔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3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민족적 현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문학을 창조하겠다는 ‘민족문학론’과도 결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을 제3세계론과 연관시켜 한걸음 진전시켜 보면 사태가 훨씬 분명해지는 느낌이다. 즉 모더니즘과 소련 관변문학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거의 극과 극으로 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다 제1세계의 이데올로기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문학이 이들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당연한 자기방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유산을 책임있게 관리하려는 정당한 자세이기도 하다. 우리의 민족적 주제성을 강조해온 민족문학론이 배타적·관념적 민족주의에 의거하고 있지 않음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아니, 제3세계론에 입각해서 볼 때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모더니즘과 스탈린시대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야말로 그들 나름의 내셔널리즘이요 대국주의일 것이다. 그리고 ‘예술의 보편성’이라든가 ‘사회주의의 국제성’을 표방하고 있는만큼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불건강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매사에 제3세계를 갖다붙이는 지나친 판단일까? 그러한 편견으로 될 위험이 분명히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제3세계적 안목을 갖추지 않은 제 모더니즘과 경직화된 사실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려는 노력을 대할 때 그러한 노력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비롯한 여러 탁월한 업적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하우저(A. Hauser)의 경우도, 바로 제3세계적 안목의 결여로 인해 애매한 절충론의 범주를 풍기고 있다.<sup>4)</sup> 루카치(G. Lukács)의 리얼리즘론은 하우저에 비해 훨씬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지만, 19세기 서구소설의 전통에 너무 집착하여 현대 세계문학의 새로운 업적들에 대한 인식할 때가 많다.<sup>5)</sup> 이러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제1세계의 이데올로기에 반발하면서도 제3세계의 입장에서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2세계 지식인 특유의 한계와 업적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매사에 제3세계를 들추는 편견이라기보다 제3세계적 관점을 통한 진실에의 새로운 접근이라 보아야 옳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3세계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이제까지 서양중심의 세계에서 통용되던 온갖

4) Arnold Hauser(1953)의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白樂晴·廉武雄譯, 1974, 文學와 藝術의 社會史—現代篇(서울: 創作과批評社)에 붙인 역자해설, 및 참고 「藝術의 民主化와 人間回復의 道」(白樂晴, 1978,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서울: 創作과批評社, 291면 이하) 참조.

5)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現代文學을 보는 視覺」(民族文學과 世界文學, 139~162면) 등에서 단편적인 비판을 시도한 바 있고, 최근에 나온 국내의 평론으로 潘星完, 「독일 市民文學의 可能性과 限界—루카치와 브레히트의 리얼리즘논쟁」(創作과批評 1980년 여름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분명한 제3세계적 관점에 입각한 본격적인 루카치 비판이 따로 나와야 할 것이다.

척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짐을 뜻한다. 물론 이것은 문학이나 예술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실적 입장의 ‘보수성’과 ‘진보성’, 개개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자체가 온통 새로운 질 필연성에 놓이는 것이다. 이 점을 극적으로 부각시켜주는 예가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말콤 엑스의 자서전(*The Autobiography of Malcolm X*)에 나온다. 그가 백인들의 죄과를 하도 맹렬히 규탄하니 백인 기자들은 “미국의 흑인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준 백인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말인가”고 끈덕지게 추궁한다. 그러자 말콤 엑스의 대답은,

“있기는 있다. 나는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다. 미국의 흑인들은 히틀러가 백인에 대해 것처럼 심한 압력을 넣고서야 미로소 웬만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스탈린이 계속 압력을 넣어줬다——”<sup>6)</sup>

이는 물론 말콤 엑스가 히틀러와 스탈린을 찬양해서 한 말이 아니다. 백인에게 좋은 것이 곧 흑인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백인들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찢어낸 한마디였던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라든가 ‘자유’ ‘평화’ ‘사회정의’ 등의 온갖 훌륭한 낱말들을 서구 또는 서양 백인들이 만들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세계 민중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손쉬운 예로 ‘평화공존’의 문제만 하더라도 두 초강대국이 싸고서 세계를 요리하기 위한 평화공존론과, 제 2 세계 나라들이 미·소의 대결에 잘못 끼여들어 자신의 안락한 위치를 뺏기기 싫다는 전쟁반대론, 그리고 제 3 세계의 민중들이 냉전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는 입장 들은 각기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도 잘 못하던 미국 흑인의 처지에서는 그러한 ‘평화’가 2차대전으로 깨진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도 않았던 것은 말콤 엑스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말콤 엑스의 충격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단순히 분노에 찬 한 흑인의 입바른 항의를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그 대답한 억양 속에서 오늘날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새 시대의 개막선언을 들어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제 3 세계는 단순한 지역개념이 아니며, 그것은 이제까지는 서구 또는 미·소가 세계를 요리해 왔으니 지금부터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우리들도 똑같이 해 봐야겠다는 식의 복수심에 머무는 3 세계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3 세계 민중의 각성과 더불어 무언가 인류역사 전체로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인간의 인간됨에 어떤 근원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서구문학의 제 3 세계적 연구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깨달음에 근거한 연구를 뜻한다.

서두에서 로렌스의 『연애하는 여인들』을 주체적이고 제 3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연구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영국문학의 최대 걸작 중

6) 말콤 엑스著(1965), 알렉스 헤일리리記錄, 金鍾澈外譯, 1978, 말콤 엑스, 서울:창작과비평사, 下卷 53-4면.

하나로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인류역사의 새 시대를 위해 갖는 그 의미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루카치 같은 평론가에 의해서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sup>7)</sup> 이것은 로렌스 자신이 루카치에 못지 않게 모더니즘을 철저히 비판했고 19세기 리얼리즘 대가들과 오히려 가까웠던 소설가임을 알 때 상당히 뜻밖의 일이지만, 그가 당시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에 대해 냉담했고 작품의 직접적 소재가 개인관계·성관계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에서 루카치의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제1·2세계의 기준에 의거한 보수와 진보,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분별은 제3세계로 시야를 넓히는 순간 일단 구속력을 잃어버린다. 지난 시대의 질서를 수호하고 문화유산들을 전승하는 일보다 새 시대의 부름에 따라 모든 것을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역사의 고비인만큼, 지구 또는 서양의 테두리 안에서만이라면 반역사적일 수도 있는 입장이나 태도가 사실은 더욱 새 역사에 적합한 것일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적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서구문학 자체내의 망각된 진실을 드러내는 특권이 제3세계의 문학연구자에게 주어져 있다. 물론 이런 특권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서구의 문학인 이상 제2세계의 연구자가 아니고는 분명히 알기 힘든 측면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 자신의 문학이나 사상·이론에서도 제2세계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해줄 수 있는 약점이나 제3세계 지식인 특유의 허위의식이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과업은 전인류적 과업이며 서구문학과 제3세계문학의 협동가능성도 그러한 문맥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 II. 「연애하는 여인들」과 技術의 時代

[I] 필자는 일찌기 로렌스 소설 『무지개』(*The Rainbow*)를 ‘근대화’의 문제와 연관시켜 살펴본 바 있다.<sup>8)</sup> 그런데 이 소설에서 산업화 내지 공업화의 구체적 양상이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농촌 가족의 3대에 걸친 생활을 주로 결혼관계·남녀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렸고 특히 제3세대의 여주인공 어술라(Ursula Brangwen)가 한 사람의 근대적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이었다. 한 사회의 공업화에 따르는 수많은 정치·경제·사회학적 문제들을 생략한 이러한 이야기로써 근대화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

7) 루카치는 「프란츠 카프카냐 토마스 만이나」는 글에서 “D.H. 로렌스가 예정관계를 男根的 성관계로 환원”시킨 것도 현대소설에서 사회적 의의가 점점 배제되어가는 타기할 현상의 일부라고 지적했을 뿐(G. Lukács, 1962, *The Meaning of Contemporary Realism*, London: Merlin Press, 74면 참조. 미국에서는 *Realism in Our Time*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음), 그의 방대한 문예비평을 통해 로렌스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고 20세기의 중요한 작가로서 꼽는 일도 없다.

8) 줄고 「小説 『무지개』와 近代化의 문제」, 創作과批評, 1978년 여름호 참조. (韓國英語英文學會編, 1979, D.H. 로렌스, 서울: 민음사, 44면 이하에 재수록.)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억지일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에 관한 어떠한 논의든 결국 근대화라는 과정이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를 올바르게 깨닫지 않고서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근대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담고 있지는 않을망정 근대화의 참뜻을 올바르게 묻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소설 『무지개』가 보여준 근대화의 과정은 한마디로 진정한 의식화의 과정과 허위의식의 확대과정을 겸한 복합적인 의미를 띤 것이었다. 즉 한편으로 인간해방의 필연적인 실현과정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에게 있어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자기망각과 자기소외의 위험에 휘말리는 시대의 다가움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화를 인간됨의 참뜻과의 관계 — 로렌스가 ‘being’이라는 낱말로써 제시하는 차원<sup>9)</sup> — 에서 생각지 않고 과학적인 계산이나 ‘가치평가’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인 특유의 허위의식이다. 자신의 그러한 의식이 가장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라는 고집에서 그 의식 자체의 진정한 역사적 의의를 묻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대다수 역사학자의 경우나 ‘인간의 소외’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실존주의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다. 근대화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소설 『무지개』가 갖는 중요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무지개』에서는 근대적 의식의 생성과정을 추적하고 그 위험을 지적하면서 절박한 위험을 통해 오히려 은밀히 자라나는 갱생과 해방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쳤을 뿐, 그러한 가능성을 정면으로 모색하고 검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무지개』(1915)에 뒤이어 나온 『연애하는 여인들』(1920)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연애하는 여인들』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떠나서도 흔히 『무지개』의 속편이라 일컬어진다. 『무지개』의 마지막 세대 주인공 이슬라가 『연애하는 여인들』의 주요인물의 하나이고 또 하나의 여주인공은 (먼저 소설에서는 단역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바로 아래 동생 구드룬(Gudrun)이다. 작중의 사건도 『무지개』가 끝나는 지점의 무대인 광산마을 팻도우버이고 시기 역시 몇년 후——대체로 1차전 발발 직전의 시점이다. 그러나 두 작품의 형식이나 분위기는 ‘속편’이라기에는 상당히 다른 편이며, 실제로 로렌스는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 1913) 간행 직후에 『姉妹』(*The Sisters*)라는 제목의 소설을 일단 탈고했다가 그 중 이슬라에 해당하는 인물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를 느낀 끝에 『결혼반지』(*The Wedding Ring*)라는 소설을 시작하여 『무지개』로 완성했던 것이며, 『자매』의 대부분을 『연애하는 여인들』로 개작하여 1916년에 완성했던 것이다.<sup>10)</sup> 형식면에서는 『무지개』가 일종의 연대기소설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한 젊은 여인의 의식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비해, 『연애하는 여인

9)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무지개』론(1978)과 더불어 上掲拙著(1978)에서 「D.H. 로렌스의 小説觀」, 231-3면, 「歷史的 人間과 詩的 人間」, 170면 註 9 등을 참조 바람.

10) Harry T. Moore(1974). *The Priest of Love: a Life of D. H. Lawrence*, Harmondsworth: Pelican Books, 1976, 245-7면 및 286-8면 참조.

들』은 두 쌍의 남녀를 중심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서론하나의 章들이 일종의 연작 중·단편과 같은 압축된 짜임새를 지니고 당대 영국사회의 여러 국면을 『무지개』보다 훨씬 폭넓고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무지개』가 공업화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아니듯이 『연애하는 여인들』 또한 공업사회 또는 기술시대의 제반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펴하고 있지 않다. 제목 그대로 연애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두 여주인공의 상대역인 두 남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상호관계가 초점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로렌스가 현대문명의 큰 흐름을 인간됨의 바탕과의 연관에서 살피며 묻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문명의 과학기술적 측면,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측면에 대한 고찰을 빼놓고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지개』와의 관련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허문적 토의나 심지어 예술작품들조차도 기술문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 과학과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기술(technology, 科學技術)의 본질이라는 것이 기술 그 자체도 아니요 모든 기술적 장치·작용들의 총화라도 구별되는 그 무엇이려는 이야기가 된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면,

기술의 본질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시초부터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 思惟토록 예우는 그 무엇 인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당분간은,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쓰기를 될 하고 그 본질에 관해 더 생각함으로써 우선 우리가 거기에로의 길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술의 본질은 우리가 아직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現存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다.<sup>11)</sup>

로렌스의 『연애하는 여인들』은 바로 이러한 보다 긴요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인 것이다.

과연 그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즉 『무지개』를 근대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애하는 여인들』도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에 충실한 소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 그려진 인물이나 사회상, 작중에 제기되는 사고와 감정들이 모두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있는 것일 뿐 독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사회, 현실의 역사와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연애하는 여인들』을 읽으면서 ‘기술의 본질’이나 ‘기술시대의 성격’을 논하는 일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순수한 심미적 접근법이란 로렌스 자신의 소설관과도 너무나 다름뿐더러 사실은 그 자체가 기술적인 사고방식의 소산인 것이다.<sup>12)</sup> 그것이 기술의 본바탕에 대한 물음과 양립하지 않을 것은 로렌스

11) Martin Heidegger, 1954, *Was Heißt Denken?*, Tübingen: Niemeyer, 53면. (譯本이 명시되지 않은 인용문의 번역은 모두 필자 자신의 것임.) ‘본질’이라는 낱말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Wesen*의 역어로서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다. 형이상학에서 現象이나 實存과 대비시키는 어떤 초월적 本質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존속되는 본모습 내지는 참뜻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英譯本에서도 *essence*라는 번역을 피하고 *presencing*이라는 動名詞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12) 前掲 拙稿 「藝術의 民主化와 人間回復의 路」 296-7면 참조.



작품의 해석 문제를 떠나서도 자명한 것이다.

‘심미적 가치’의 제조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알레고리(隱喻)로서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소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기술의 본뜻을 묻는 데는 적합치 못한 형식이다. 현상을 초월한 관념적·정신적 ‘본질’이라면 현상세계의 재료를 동원하여 풍유적으로 암시하는 길밖에 없겠지만, 로렌스는 역사와 물질적 현존 속에서만 이룩되는 본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될 때——다시 말해서 리얼리즘의 차원에서 형상화될 때——비로소 작품으로서 호소력을 지니는 것이다.

실제로 『연애하는 여인들』은 20세기 서구문학의 걸작으로 유래가 드물 만큼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기본여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20세기의 대가들 가운데 유독 토마스 만(Thomas Mann) 소설의 시간구조가 현실의 ‘정상적’인 시간, 사회적·역사적 통일체로서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점을 부가치는 높이 평가한 바 있지만,<sup>13)</sup> 『연애하는 여인들』의 시간구조야말로 더욱 전통적이고 ‘정상적’이다. 아니, 그 자연주의적 묘사의 충실함이나 고전적인 ‘全知的 著者’(omniscient author)의 당당한 토운에 있어서도 톨스토이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다만 그 무대의 폭이나 등장인물의 수효가 훨씬 제한되어 있고 톨스토이가 한 시대의 파노라마(全景)를 포괄하는 데 비해 로렌스는 일편의 극적 에피소우드를 통해 ‘본질적인 사건’의 포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안나 카레니나』가 에포스(大敘事詩)적이라면 『연애하는 여인들』은 드라마적인 성격이 더욱 짙은 셈이다.

어쨌든 『연애하는 여인들』에는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에서와 같은 식의 난해성은 없다. 즉 리얼리즘의 기본규칙을 무시하고 다수 독자들의 공감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심미적 유희로 됨으로써 ‘난해’해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탐구하는 바가 리얼리즘의 正道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제까지의 리얼리즘을 지배해온 일정한 인간관——인간됨의 참바탕을 묻지 않는 온갖 종류의 인간관——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자 자신도 그러한 차원에서 묻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소설을 리얼리즘으로 읽어야 좋을지 어떨지부터가 제대로 ‘감히 잡히지’ 않는 것뿐이다.

영국·미국 등 영문학 연구의 본고장에서 로렌스 연구가 일종의 대량산업으로 된 지도 오래전만 그의 작품세계——특히 그의 최대의 작품으로 흔히 지목되는 『연애하는 여인들』——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별로 많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이나 미학적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요구하는 인간됨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만 그것이 지난날 리얼리즘 대가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독창적인 새 경지를 개척하는 예술적 성취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무슨 ‘철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일과도 거리가

13) G. Lukács, 1964, *Essays on Thomas Mann*, tr. S. Mitchell, London: Merlin Press, "The Tragedy of Modern Art", 82-4면 참조.

떨다. 따라서 스스로 '반철학자'(anti-philosopher)<sup>14)</sup>임을 자처하는 리비스 같은 평론가가 이제까지 가장 탁월한 로렌스비평을 써온 것도 우연이 아닌데, 로렌스의 작품은 전통적인 서양철학 자체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역사의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비스처럼 자신의 '반철학자적' 태도를 단순히 문예비평가로서의 신조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로렌스 자신이 소설 이외의 산문을 통해서도 거듭 그리 하듯이 플라톤 이래의 서양철학 전체에 대한 사려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이며,<sup>15)</sup> 서양철학의 역사와 더불어 그 위력을 길러와 이제 전지구를 휩쓸기에 이른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리비스의 비평은 이러한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로렌스옹호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기술의 본질'에 대한 하이데거의 발언을 원용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며 결코 또 하나의 철학 학설을 개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② '기술의 본질'이라거나 '기술시대' 또는 '기술문명'은 로렌스 자신의 용어는 아니다. 그는 주로 '산업주의'(industrialism)를 이야기했고 그 '기계성'(mechanicalness)을 비판했다. 이 점에서 그는 산업혁명 이래 영국의 많은 문인들이 제기해온 사회비평·문명비평의 전통에 굳건히 서 있는 셈이다. 「노팅엄과 광산지대」("Nottingham and the Mining Countryside") 같은 에세이는 그런 전통에서도 예지와 열정으로 빛나는 글이며, 만년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 1928)은 이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노팅엄과 광산지대」에서도 드러나듯이 로렌스는 영국의 완전한 산업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날 낭만적 반자본주의자들의 문명비평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고, 산업사회의 '기계성'을 플라톤시대로까지 거슬러올라가 생각하는 다른 여러 글들에서도 러스킨(John Ruskin) 또는 모리스(William Morris)의 사고와 다른 차원에 다달아 있다. 따라서 『연애하는 여인들』 같은 소설을 두고서는 그것이 산업화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현대 산업사회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는 식의 질문이 무의미해진다. 이제까지의 문명의 일부로 진행되어온 일체의 '진단'과 '대안'들을 포함한 모든 기존생활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할 때 다음 시대의 창조적 삶이 어디서 그 실마리를 찾을지를 묻는 것이 이 작품의 초점이기 때문이다. 로렌스 자신이 「소설을 위한 수술——또는 폭탄」에서 말하는 바 '다음에는 무엇을?'을 묻는 그런 소설인 것이다.<sup>16)</sup>

14) F. R. Leavis, 1976, *Thought, Words and Creativity: Art and Thought in D. H.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34면. 그의 주된 로렌스비평 업적은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이보나 앞서 나온 *D. H. Lawrence: Novelist*(1955)이다.

15) 예컨대 D. H. Lawrence, 1936,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 H. Lawrence*, ed. E. McDonald, London: Heinemann에 수록된 "Surgery for the Novel— or a Bomb", "Introduction to These Paintings", "Study of Thomas Hardy" 등 참조.

16) *Phoenix*, 520면 참조. (이 글은 太極出版社刊, 1974, 文學과 行動, 254면 이하에 金鍾哲譯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연애하는 여인들』에 대한 세밀한 작품분석을 꾀하기에는 지면도 모자랄뿐더러 이 글의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을 통한 검증의 가능성을 전제한 채 필자의 논지를 다소 일방적으로 펼쳐 나갈까 하는데,<sup>17)</sup> 이러한 전개의 편의상 책의 제17장 ‘실업계의 거물’ (“The Industrial Magnate”)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실업계의 거물’로 지칭된 인물은 이 지역 큰 탄광의 주인이며 소설의 두 남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제랄드 크라이치(Gerald Crich)이다. 그의 친구 버킨(Rupert Birkin)은 여술라와의 사랑이 결혼으로 열매 맺어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데 반해, 제랄드는 사업에도 성공하고 구드룬을 애인으로 만드는 데도 성공하지만 끝내는 창조적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알프스의 눈 속에서 허무한 죽음을 하고 만다. 이러한 제랄드가 제16장 (“Man to Man”)에서 버킨으로부터 ‘영원한 우정’의 제의를 받고 응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구드룬과의 관계도 아직 애매한 채로 아버지 트마스 크라이치의 다가오는 죽음으로 정신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자는 갑자기 ‘실업계의 거물’이라는 단어를 통해 크라이치 탄광의 역사를 소개하며 제랄드의 사업방식과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분석하고 나온다. 작가의 자신탈판하고 다분히 직설적인 어조에서 독자는 크라이치 탄광의 역사는 곧 근대 실업계 자체의 略史임을 읽게 되며 제랄드의 생애는 곧 모든 성공적인 산업자본가의 전형적인 진보임을 느끼게 된다.

원래의 탄광은 주인이 유족하게 살고 광부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고 그러는 가운데 國富에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서 족했다. 제2세대에 해당되는 토마스 크라이치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돈을 모은 뒤라 노동자들의 복지만을 생각했다. 임금을 올려주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오로지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으로 광산을 운영보자 했다. 광부들도 처음에는 대단히 만족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 제기된 문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찌서 주인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잘 사느냐는 것이었다. 제랄드 아버지의 기독교에 입각해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광부들의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고 광주들이 연합해서 광산폐쇄를 결의했을 때 크라이치사장도 전국은 임주들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정신적 타격이었다. 파업은 실패하고 광부들은 일자리로 돌아왔지만 사태는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에 집착했고 그 아내와의 인생도 이런 자기기만 속에서 살아왔다.

제랄드는 이러한 아버지와 그의 ‘사랑’, 광부들이 외치대는 ‘평등’, 이 모든 것에 반발하며 자랐다. 세상물정을 익히면서 그는 사장의 지위와 권위가 현실에서는 없어서 안될 것

17) 『연애하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未刊行 학위논문 Nack-chung Paik, 1972, “A Study of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as Expressions of D. H. Lawrence’s Thinking on Modern Civilization”(dissertation submitted to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의 제3장 ‘*Women in Love* and the Age of Technology’에서 비교적 상세한 분석과 검증을 꾀한 바 있다. 그 일부를 이 글에서 인용했고 기본적인 논지도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제3세계적 인식에서는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고 믿는다.

일을 깨달았고 크리스찬의 사랑과 자기희생 운운하며 넋말을 할 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지위와 권위는 기능상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정당할 것이었다.

그것 자체가 전부라거나 궁극적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반하자면 기계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았다. 그 자신은 통제하는 중심 부분이 된 것이고 수많은 광부들은 각기 나름대로 통제되는 부분인 것이었다. 되나 보니 그리 된 것이었다. 차라리 수레바퀴의 중심축이 외부의 수레바퀴 백개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전체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흥분할 일이었다. (XVII, 255)<sup>18)</sup>

이러한 사실 자체는 그것대로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랄드는 관련된 모든 사실들과 그 근원까지를 사려깊게 살필이 없이 “결론으로 비약했다”고 로렌스는 말한다.

그는 민주주의·평등의 문제 전체를 어리석은 것거리의 문제로 내팽개쳤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사회적 생산기계였다. 그것이 완벽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부족없이 생산해 내고 사람마다 자신의 기능상의 지위나 크기에 따라 합리적인 몫을 분배받으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 먹을 것을 받은 뒤에는, 악마가 몇대로 뛰어들어도 좋았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한 사람마다 자기 취미와 욕망을 돌보면 되는 것이었다. (255~6면)

여기서 제랄드의 입장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체주의자의 억압적인 이념과도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거대한 사회적 생산기계’(the great social productive machine)라는 존재지만 거기서 저 먹을 것을 얻은 다음에 개인으로서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는 밀(J. S. Mill)의 자유론의 원칙에 그대로 따르는 전형적인 영국식 자유주의자가 제랄드인 것이다. (단지 그가 구시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사회화된 자본주의 곧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라는 사실이 그의 현재성을 더해줄 뿐이다.) 로렌스의 비판이 그 어떤 ‘독재체제’만을 겨냥하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탄광을 경영하는 제랄드의 태도와 업적을 작가는 이런 말로 기술한다.

그는 화살을 본 순간 즉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았다. 그는 ‘물질’과의 싸움, 데지와 그것이 감싸고 있는 석탄과의 싸움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다. 지하의 무생물과 맞부딪치 그것을 자신의 의지(意志)로 환원시키는 일, 이것이 유일한 관념이었다. 그리고 물질과의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는 원비하게 조직된 완벽한 도구들—그 작용에 있어 비없이 정교하고 조화로우면서도 한 사람의 정신을 대표하며 주어진 동력의 가져없는 반작용 통해 하나의 목적을 불가항력적·비인간적으로 달성할 그러한 기계가 있어야 했다. 제벌드들 거의 종교적인 환혼감으로 드려져준 것은 그가 구축하고자 하는 메카니즘의 어리한 비인간적 원리였다. 인간일 그가 그 자신과 그가 제압해야 하는 물질 사이에

18) D. H. Lawrence, *Women in Love*, Penguin版(1960)을 토대로 번역·인용. 로마 숫자는 章, 아라비아수는 面數를 가리킴. (이하 같음). *Women in Love*의 국역본으로는 최근(1980)에 三中堂文庫로『사랑하는 女人들』上·中·下편이 나온 바 있으나 그대로 인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완전하고 빈함이 없으며 신(神)과도 같은 매개물을 놓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의지와 이에 저항하는 대지의 물질이라는 양단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그는 그의 의지의 표현 그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 힘의 화신이요 거대하고 완벽한 기계이며, 하나의 체제, 순수한 질서의 활동, 순수한 기계적 반복이었다. 무한대의 반복, 따라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었다. 그는 수레바퀴의 회전처럼 하나의 순수하고 복잡하며 무한히 반복되는 운동에의 완벽한 합치라는 순수한 기계원칙에서 자신의 영원과 무함을 발견했다. 수레바퀴와 같은 회전은 그러나 생산적인 회전이였다. 마치 우주의 회전을 생산적인 회전이라 부를 수 있듯이 영원을 통한 무한대로의 생산적인 반복이었다. 그리고 이 무한대로의 생산적 반복, 이것이 신적(神的) 운동이었다. 그리고 제랄드는 기계의 신—문자 그대로 기계에서 나온 신(Deus ex Machina)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산의자 전체가 곧 신성(神性)이었다. (256~7년)<sup>19)</sup>

여기서 작가의 말투는 분명코 한 개인의 심리묘사나 한 회사의 내력 이상의 거대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제랄드가 아버지 세대의 인도주의를 넘어서서 도달한 사업원칙은 모든 성공적인 현대기업의 경영원칙에 다름아니며, 거기에는 그 나름의 역사적 사명감과 일종의 종교적 황홀감마저 작용하고 있음을 이 대목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대목만을 갖고서 작가가 제랄드라는 인물을 통해 '기술의 본질'이 현대생활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되는 기술시대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는지 모른다. 기술시대의 역사를 로텐스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작품 전체를 두고 조심스럽게 검증해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제랄드의 '무한대로의 생산적 반복'은 가장 단순한 동력기에서 최신식 컴퓨터에 이르는 모든 기계의 기본원칙이자 자연과학과 현대기술에 의거한 모든 생산활동의 본질적 속성임이 사실이다. 전지구 위에 "인간의 의지가 순탄하고 좌절당함이 없이 작용하는 거대하고 완벽한 체제"(257년)를 확대하겠다는 제랄드의 야심도 한 개인의 야망이나 사업욕이라는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존재론적 원리로서의 '의지'

19) 중요한 대목이니만큼 원문을 덧붙이기로 한다. "Immediately he saw the firm, he realized what he could do. He had a fight to fight with Matter, with the earth and the coal it enclosed. This was the sole idea, to turn upon the inanimate matter of the underground, and reduce it to his will. And for this fight with matter, one must have perfect instruments in perfect organization, a mechanism so subtle and harmonious in its workings that it represents the single mind of man, and by its relentless repetition of given movement, will accomplish a purpose irresistibly, inhumanly. It was this inhuman principle in the mechanism he wanted to construct that inspired Gerald with an almost religious exaltation. He, the man, could interpose a perfect, changeless, godlike medium between himself and the Matter he had to subjugate. There were two opposites, his will and the resistant Matter of the earth. And between these he could establish the very expression of his will, the incarnation of his power, a great and perfect machine, a system, an activity of pure order, pure mechanical repetition, repetition *ad infinitum*, hence eternal and infinite. He found his eternal and his infinite in the pure machine-principle of perfect coordination into one pure, complex, infinitely repeated motion, like the spinning of a wheel; but a productive spinning, as the revolving of the universe may be called a productive spinning, a productive repetition through eternity, to infinity. And this is the God-motion, this productive repetition *ad infinitum*. And Gerald was the God of the machine, *Deus ex Machina*. And the whole productive will of man was the Godhead."

(will)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제랄드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 그 자신의 온갖 개인적 사연과 특징이 작용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서 맛보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그를 끝까지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자기소외를 심화시키는 데도 그 나름의 사정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 역시 제랄드 개인만의 운명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세계정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현대인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제랄드의 사업은 어떤 거대한 시대적 운명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과 반대는 설득력을 잃어버린다. 우선 토마스 크라이치 류의 인도주의와 기독교적 ‘사랑’의 논리가 그렇다. 광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무조건적 평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토마스 자신이 이미 내렸던 것이며, 제랄드는 이를 더욱 정직하게 실현해서 더욱 많은 석탄과 빵을 더욱 많은 광부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해낸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토마스 크라이치의 자기기만적인 이웃사랑에 결코 속지 않고 평등을 외쳐대던 노동자들 자신이 제랄드의 원칙에는 부지중에 승복을 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랄드는 그들의 주장을 꺾었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앞질러버렸던 것이다.

광부들은 뒤처지고 말았다. 그들이 아직도 인간의 신성한 평등과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제랄드는 그들을 추월해서 그들의 주장을 본질적으로 인정한 다음, 인간의 자격으로 인류 전체의 의지를 실현하는 일로 나갔다. 그가 인간의 의지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완벽한 비인간적 기계를 건립하는 것임을 인식했을 때 그는 단지 광부들을 좀더 높은 의미에서 대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본질적으로 대표했고 그들은 물질적인 평등을 위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멀리 뒤떨어지고 남아져 있었다. 인간의 욕망은 이미 이러한 새롭고 더욱 큰 욕망, 인간과 물질 사이에 개재하는 완벽한 메카니즘에의 요구, 신성(神性)을 순수한 메카니즘으로 환치시키려는 욕망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257)

따라서 제랄드의 새로운 경영 방식에 의해 온갖 비능률이 제거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광부들은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반항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비인간화에 승복하고 야릇

20) 서양의 근대 형이상학이 라이프니츠에서 칸트, 피히테, 헤겔, 셸링을 거쳐 니체로 내려오면서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으로 ‘의지’를 설정하게 되는 현상을 하이데거는 기술시대의 전개에 따른 하나의 존재사적 운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前掲 Heidegger, 1954, 36면 참조.) 이런 문맥에서 보면 니체의 ‘권력의의지’(Wille zur Macht)도 결코 심리적 차원의 권력욕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며, 다만 그것을 하나의 존재론적 원리로 드러나게 만든 역사의 참뜻을 망각할 때 제랄드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자기도취와 자기소외, 그리고 나찌즘이 보여준 바와 같은 더욱 야만적인 파괴의 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同一者의 永遠回歸’(das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라는 것도 비과학적인 循環史觀의 부활이나 덧붙여 놓고 ‘인생’을 ‘긍정’한다는 객기로 보아서는 안된다. 註 19)의 인용문에서 실감할 수 있듯이 ‘의지’의 대상으로 성립하는 세계는 ‘순수한 기계적 반복’ 곧 ‘동일한 것의 끝없는 되돌아옴’을 통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라는 글의 追記(‘Anmerkung über die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다. “근대적 동력기의 본질이 ‘동일자의 영원회귀’의 한가지 전개양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M. Heidegger, 1954, *Vorträge und Aufsätze*, Pfullingen: Neske, “Wer ist Nietzsches Zarathustra?”, 126면.)

한 만족감까지 느낀다.

처음에 그들은 제랄드 크라이치를 증오했고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욕지거리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모든 것을 어떤 저명적인 만족감을 갖고 받아들였다. 제랄드는 그들의 제사장였고 그들이 진짜 느끼는 종교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벌써 잊혀졌다.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있었다. 엄격하고 무섭고 비인간적이지만 바로 그 파괴성에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높은 것, 가장 경이롭고 초인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감정이나 이성의 비판에 있는, 정말 신과도 같은 이 위대하고 초인적인 체제에 속함으로써 드높아짐을 맛보았다. 그들의 심장은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만족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랄드는 결코 그가 한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는 일——삶을 순수한 수학적 원리에 종속시키는 거대하고 완벽한 체제에의 이러한 참여를 갖다주는 일에 그들보다 앞섰을 따름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자유, 그들이 정말 원하는 종류의 자유였다. (239~60면)

물론 이것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인간해방이 아니라 도리어 혼돈의 극치임을 작가는 꼬집어 말한다. 제랄드 자신도 일단 사업이 성공한 뒤로는 문득문득 야릇한 공포감에 쫓기게 되며 그의 '신비적 이성'(mystic reason)——합리적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 인간 본연의 건강함을 지켜주는 보다 근원적인 이성——이 무너져감을 느낀다. (261~2면) 유일한 기분전환이던 여자들도 차츰 심드렁해지는 느낌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제18장("Rabbit") 이후 구드런과의 연애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만,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다른 무엇보다 강렬하고 스릴에 찬 경험은 될지언정 참된 해방의 길은 못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구드런과의 관계가 파탄에 빠지면서 제랄드가 허무하게 죽는다는 사실은 기술시대 인간의 한 전형적 운명을 보여준다. 기술의 진정한 기술됨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를 앞서 인용했거니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기술시대 인간의 위험 역시 기술 자체에 내재하는 어떤 魔性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인간적·기술적 실수일 수가 없다. 현대의 기술(과학기술)은 진리가 드러나며 이룩되는 한 형태이자 그 현대 특유의 형태요 운명인데, 바로 이러한 차원을 망각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근원적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위험' 그 자체인 것이다.<sup>21)</sup> 하이데거에 의하면 원래 고대 희랍에서 technē는 '詩'의 어원인 poiēsis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드러내는 한 방식으로 이해되었는데 다만 지질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손을 써서 드러나도록 '불러 이끌어냄'(Herausfordern)이 technē의 독특한 진리구현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전개양상은 역사를 통해 면전해 왔다. 근대과학의 성립과 더불어 자연은 '주체'에 의한 인식과 작용의 '대상' 내지 '객체'로 되고,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의 본격적인 발달과 더불어 대상(Gegenstand)조차도 대상으로서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상실하며, 모든 것이 수리적 계산과 기술적 작동

21) 이 대목 및 이하의 논의에 관해서는 Heidegger, 1954, 위의 책에서 "Die Frage nach der Technik" 참조.

의 자료로 정리·조직된 일종의 常備資源 내지 在庫(Bestand: '永繼' '殘高' 등의 뜻도 있으며 '공급하다' '정리하다' '주문하다'의 뜻을 갖는 動詞 bestellen과 연결됨)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진리가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방식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이룩하게 만드는 현대기술의 본질 내지 본성<sup>22)</sup>이야말로 현대인 특유의 시대적 운명이자 기술시대 인간에게 닥치는 위협의 출처이다. 왜냐하면 기술에 의한 진리구현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 근원적 진리의 구현임을 은폐하는 형태로——즉 모든 것이 인간의 업적이요 기술의 힘인 것처럼 보이게——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기술과 다른 지난날의 진실의 드러냄(poiesis, Hervorbringen)을 은폐할뿐더러 인간의 자기망각·자기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연애하는 여인들』에서 제랄드가 어떤 과학기술적인 파탄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더 본원적인 삶을 찾으려는 의지의 실패로 죽는다는 사실은 기술시대의 그와 같은 본질적 위협을 오히려 충실히 반영한 셈이다. 사실 제랄드의 사업 자체는 그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가 해내었을 시대적 과업이며 인류역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노동자들 자신이 거기서 '어떤 치명적인 만족감'(some fatal satisfaction)을 맛보며 이에 승복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작중의 사실이 작가 개인의 환상이 아님은 20세기 선진공업사회의 노동계급이 애당초 마르크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 사회의 제탈드들에 대한 혁명적 대안이 못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아니, 제3세계의 민중들도 산업화·기술화를 실현해야 할 필연성은 너무나 뚜렷한 반면, 인간해방의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어디까지나 미지수로 남아 있다. 기술시대의 함정을 깨달고 그 속에서 인간됨의 참뜻을 구현하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그리하여 기계적인 만반이나 모방의 차원을 넘는 창조적 실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어느덧 그들도 동·서양의 새로운 제탈드들에 의해 추월당하고 뒤쳐져버려 있음을 발견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제랄드니만큼 그가 이리저리한 '교훈'을 전달 또는 암시해주는 알레고리적 인물이 아니고 본격적 리얼리즘의 전통에 따라 형상화된 인물임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구드룬이라는 탁월한 개성의 소유자를 애인으로 얻을 만한 매력과 박력을 지닌 남성이며, 이 소설에서 여러 모로 로렌스 자신을 상기시키는 버킨의 가까운 친구이자 버킨이 새로운 동지관계를 더불어 이룩하고자 애쓰는 상대이다. 이런 과장들을 여기서 일일이 점검해 볼 겨를이 없으나, 『연애하는 여인들』이 『제탈리부인의 연인』과도 다른 차원의 업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랄드가 칼리포드 캐럴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출중하며 리얼리즘의 본뜻에 맞춰 완성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칼리포드도 자연주의적 묘사의 측면에서 충실히 형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탄광주인 겸 귀족이자 성불구자인 그는 엄격히 보면 알레고리의 차

22) 하이데거는 이것을 Ge-stell이라는 新造語로 일컫는다. (위의 책, 27면 참조.)



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소설 자체도 산업사회에 대한 ‘문명비평’의 차원에 머물고 『연애하는 여인들』에서처럼 ‘기술의 본질’을 사유하기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③ 소설에서 버킨과 어슐라의 관계는 ‘실업계 저물’의 운명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제랄드식의 파멸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해 나가는 데 최소한의 성공을 거둔다뿐이지 세상의 제랄드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무슨 ‘대안’을 이룩하지는 못한다. 위에 살펴본 기술시대의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대안이 쉽사리 마련될 수도 없는 것이다.

버킨과 어슐라의 이야기 역시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라는 차원을 떠나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선 버킨이 추구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분명히 잡히지 않는다. 많은 비평가들이 그를 단순히 로렌스의 ‘교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는가 하면, 그의 발언 자체보다 어슐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평가들도 두 사람의 사이가 무슨 ‘로렌스적’ 관능의 극치로 쉽사리 특징지어지지 않는 데에 어리둥절하기도 한다. 소설 전체를 두고 말했듯이 어슐라와 버킨의 관계에서도 어디까지나 리얼리즘 소설의 작중형질로서 劇化된 관계를 읽어야 하며, 동시에 이 드라마를 통해 제기되는 물음은 종래의 리얼리즘 작가들이 거의 소홀히했던 차원의 물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버킨의 동기가 단순히 아집과 독선이 아니고——이런 요소가 다분히 섞여 있음은 작가 자신이 군데군데 폭로하고 있지만——세계사적 타당성을 지닌 어떤 추구이며, 어슐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때 그때의 변화가 예술적으로도 적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버킨이 추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제 3 장(“Class-room”)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관능의 충족이라고 말하고 뒤이어 제 5 장(“In the Train”) 제랄드와의 대화에서는 한 여자와의 ‘사랑의 풀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삶의 중심을 찾자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유의할 점은 이러한 발언들이 어디까지나 작중의 그 시점에서 버킨이 취하는 작중 태도이지 결코 작가의 완결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버킨이 뜻있는 삶의 전제조건으로서 남녀간의 충족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로렌스 자신의 알려진 입장과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본능생활조차도 기술적 인식과 작동의 대상으로 체계화되는 시대에는 그것이 그러한 시대의 기본성격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정립하려는 원대한 노력의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버킨의 노력이 실제로 이러한 차원의 것임은 작중의 사건이 진전되면서 점차 명확해진다. 상류층의 ‘해방된’ 여성이자 모든 것을 알음알이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여자인 허마이어나 로디스(Hermione Roddick)와의 애정관계를 청산하는 단계에서 그는 그의 삶이 自意識에 찬 성관계가 아닌 무의식적인 관능의 충족에 우선 뿌리박기를 원한다. 그러나 허마이어나와는 매우 다른 어슐라와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사랑’의 대변자는 어슐라요 버킨 자신은 오히려 이에 맹렬히 반발하는 입장이 된다. 그들이 처음으로 단골이서의 대화를 나눌 때부터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끝내 피하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함께 자유로운 것'(freedom together)이라고 대답한다. (XI, 147) 어슐라와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차원으로 끝나서는 절정으로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없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크라이치 저택에서 물놀이가 있던 날 밤 비킨은 처음으로 어슐라를 소유하고 관능의 충족을 맛보지만, 무언가 "이것이 아닌데"라는 머뭇거림이 마음 한 구석에 남는다. 때문에 이튿날 그는 어슐라가 기대하는 것처럼 당장에 뛰어가서 청혼을 하지 않고 저택 밖에서야 찾아갔다가 한바탕 싸움을 하고 돌아와 병이 난다. 병식에서의 명상을 통해 남은 세상의 사랑과 결혼에 안주할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더욱 굳어진다.

그는 어슐라가 자신에게 맡겨져 와 있음을 알았다. 그의 생명이 그녀에게 달려 있음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제시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았다. 사랑의 남은 길은 무서운 속박이요 일종의 징집 같았다. 자신의 속에서 무엇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과 결혼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과 부부간의 만족이라는 끔찍한 프라이비시 속에 함께 사는 생활을 생각하면 혐오감이 치솟았다. 그는 좀더 맑고 좀더 탁 트이고 말하자면 더 시원한 그 무엇을 원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뜨겁고 비좁은 친밀함은 질색이었다. 이들 결혼한 부부들이 그들의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만의 배타적인 동맹관계 속에 자신을 담아넣는 꼴은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중략]

일반적으로 그는 성(性)이라는 것을 증오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제약이었다. 남자를 한 성이 갈라진 반쪽으로 만들고 여자를 나머지 반쪽으로 만드는 것이 섹스가 아닌가. 그는 스스로 단일하기를 원했고 여자는 여자대로 단일하기를 원했다. 그는 섹스도 다른 본능적 욕망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인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적 과정으로 간주되기를 바랐다. 물론 그는 성적 결합으로서의 결혼을 원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어떤 연관을 그는 원했다. 남자와 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갖는 두 개의 순수한 존재로서, 각기 상대방의 자유를 이복하며 서로가 마치 한 힘의 양극처럼, 두 명의 천사처럼, 아니면 두 개의 정령(精靈)처럼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XIV, 223-4)

물론 이것도 주어진 대목에서 비킨이라는 작중인물의 생각이요 입장이지 작가의 '최종적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 이후로도 비킨은 어슐라와의 관계 그리고 제랄드와의 관계에서 많은 목절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그의 생각도 기록을 거치면서 성숙해간다. 그러나 로렌스가 '성적 만족'에서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다는 따위의 통념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만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오히려 "물이 얼마나든 있는 세상에서 단순한 욕망들이 문제가 안 되듯이"(224면) 욕망이 문제가 안되어 인간이 인간됨을 자유롭게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킨과 어슐라가 제23장("Excuse")의 나뉘이에서 드디어 완전한 일치점을 맛보게 되는 대목에 이르러 작가는 그것이 열정(passion, 愛慾)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 시골 주막집의 응접실에 앉은 두 사람의 더없는 행복감을 표현한 '놓여남'(release)이라는 말은 그야

달로 해방이요 해탈에 가까운 것이다.

드디어 이것은 해방이었다. 그녀는 애인들도 가졌었고 일정도 맛보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도 열정도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딸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태초에 있는 하느님의 기이하고 인간과 다른 아들들에게로. (XXIII, 353)

실제로 비평가들 중에는 이런 대목이 정상적인 성관계마저 드디어 초월해버린 어떤 색정의 극치가 아닐까 하여 남다른 상상을 펼쳐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sup>23)</sup> 그러나 이 대목의 요점은 단순히 버킨의 몸에 손을 댄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일지기 욕정의 황홀에서도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황홀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사랑과 열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날 숲속의 어둠을 찾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흡족한 사랑의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써 이 장이 끝난다.

그러나 버킨의 '함께 자유로움'이 진정으로 새롭고 '더 시원한' 세계의 창조를 뜻한다면 두 사람의 성취된 관계로써 이야기가 끝날 수 없다. 물론 이 관계의 성취 자체가 이들과 세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성취하는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아직도 엄연히 버티고 있는 기존의 세계와 이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야흐로 심각하게 제기된다.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낡은 세계의 타성에 다시 휘말려드는 일이 되듯이, 두 사람만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노력 역시 해묵은 도피주의로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다. 제23장에서 이미 이런 어려움이 대두된다. 우선은 두 사람 다 직장을 그만두고 일단 떠돌이 생활을 좀 해보자는 버킨의 제의에 어슬라도 동의하지만 어쩐지 너무 막연하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동시에 버킨이 꿈꾸는 미래에 그들 둘만이 아니고 항상 타인의 존재가 끼여드는 데에 대한 불만도 엿보인다. 어딘가에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는 버킨의 말에——

“하지만 어디에——?” 그녀는 한숨을 지었다.

“어딘가에——아무데든. 그냥 떠돌이로 떠남시다. 그래, 그러면 돼. 그냥 훌쩍 떠나는거야.”

“그래요——” 그녀는 여행이라는 생각에게 스릴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것은 다만 여행일 뿐이었다.

“자유롭기 위해서——” 그는 말했다. “자유로운 곳에서, 다른 한두 사람과 더불어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지요” 라고 그녀는 아쉬운 듯 대답했다. 그 ‘다른 한두 사람’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 그는 말했다. “그건 당신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완성된 관계의 문제지. 완벽한 관계——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녀는 말했다. “그건 당신과 나의 사이지요. 당신과 나의 문제,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향해 두 팔을 내밀었다. (XXIII, 356)

23) 예컨대 H.M. Daleski, 1965,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London, 179면에 인용된 G. Wilson Knight, “Lawrence, Joyce and Powys”의 해석이 그런데, 이처럼 극단적인 추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장편의 초점이 ‘열정’이 아닌 ‘해방’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평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일치 속에는 이미 새로운 갈등이 엿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일치가 달성됨으로써만 비로소 제대로 문제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다. 녀돌이 생활이란 하나의 임시방편이요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어술라와의 사랑에 덧붙여 제랄드와의 '다른 종류의 사랑'(another kind of love)을 희구했던 버킨의 꿈이 깨짐으로써 아무런 획기적인 접점이 이룩되지 못한다. 다만 어술라가 이러한 실패는 당연한 것이요 자신과의 사랑만으로 만족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버킨은 끝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말로써 소설이 끝맺는 것이다.

버킨과 제랄드의 관계야말로 기왕의 평론가들 간에 가장 많은 억측과 물이해를 낳아온 것 같다. 그러나 기술시대의 물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버킨이 제랄드와 같은 인물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로 되며, 이것이 알베르티의 수준이 아니라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중사건으로서 실감이 날 만큼의 온갖 인간적 자질과 특색을 지닌 인물이 제랄드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제랄드와의 관계에 대한 버킨 자신의 생각도 작중의 진행과정에서 점차로 분명해진다. 예컨대 제 2 장("Shorlands")의 말미에서는 두 사람 다 남자와 남자 사이의 깊은 관계의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이 제대로 개발이 안되어 있다고 작가는 지적한다.(37면) 제 16장에서 버킨이 옛날 게르만족 기사들 사이의 의형제(Blutbrüderschaft)를 맺는 것보다 같은 영원한 우정을 느닷없이 제외하는 것도, 그때까지의 온갖 접촉과 갈등——그리고 어술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통찰들——에 힘입어 그런 생각이 그 순간에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의형제' 제의 자체도 사실은 아무런 수수께끼가 아니다. 옛날식으로 피를 가르며 걸치는 시대착오라고 버킨 자신이 말하고 있다. 요는 남자들 간의 비정상적인 사랑(곧 남색관계)도 아니요 그렇다고 흔히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우정으로 통하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적당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도 아닌 참된 동지애·형제애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의 사랑조차도 기술적 주문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시대에 남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영역에 함몰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뜻있는 현실로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으니, 인류가 이룩해온 모든 창조적 문명이 건강한 남녀관계에 못지 않게 이러한 남자와 남자 사이의 묵숨보다 무거운 관계에 의존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버킨의 제외는 문명생활의 이러한 필수조건을 자신의 세계에서 되살려 보자는 시도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랄드가 버킨과 동일한 생활방식을 택하기를 고집하는 것보다 다르다. 그는 자신이 어술라와 이룩한 관계가 제랄드와 구드린 또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적어도 현재로서는——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오히려 제랄드가 구드린과 결혼할까 한다는 의문을 해왔을 때 버킨은 반대한다. 낡은 결혼의 개념을 애초부터 혐오해온 버킨이 버킨과 제랄드의 경우 결혼이란 일종의 자포자기 행위임을 그는 알아차린다. 버킨 자신과도 달리 제랄드의 경우에는 먼저 버킨과의 동지관계를 받아들인 연후에야 비로소 한 여자와의 참된 결합이 가

능해질 유형이라 보는 것이다. (XXV, 397-8 참조)

물론 제랄드는 이런 결정적인 대목에서마다 평소 의지의 사나이답지 않게 멍멍한 의지결핍의 상태에서 버킨의 제안을 회피하고는 한다. 공적으로는 기술지배의 무비판적인 일꾼이요 사적으로는 해묵은 사랑의 이념에 얽매여 있는 그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맛보지 못할뿐더러 기술시대의 규격화된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난 새로운 동지관계가 그에게는 전혀 실감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동지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는 제랄드 쪽에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을 때에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제랄드가 어릴적부터 일종의 숙명적 낙인이 찍힌 인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버킨의 ‘함께 자유로움’이 아직은 기술사회의 심장부에까지 미칠 수 없다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떤 숙명적 타입을 통해 우화적으로 제시한 결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랄드라는 인물의 인습적인 의지와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의 의지결핍증이 합쳐 그 자신의 ‘숙명’을 추인하고 조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술시대 인간의 운명이 결코 타율적으로 주어진 숙명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구나 버킨과 어슬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룩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 이외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갈구가 버킨에 의해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써 이미 제랄드의 죽음이 현대인의 보편적 숙명일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 III. 西歐的 人間主義를 넘어서

Ⅰ 현대를 한마디로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만 현대기술에 의한 세계지배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특정한 인간들이 일정한 경제체제·권력구조·문화형식을 통해 실현해온 지배이다. ‘기술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역사의 구체적 과제를 외면하는 작태일 따름이다. 실제로 서양에서의 많은 ‘본질적’ 기술비판이라는 것이 기존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추상적이 ‘문명비평’으로 얼버무리는 예가 많았다. 루카치 같은 평론가가 하이데거를 인간존재를 추상화시키는 반역사적 사조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24)</sup>

로렌스 자신도 『채털리부인의 연인』이나 일부 산문에서처럼 상식적인 문명비평의 차원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러한 추상화의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 『아들과 연인』 전반부의 생생한 자전적 기록 이후로 그는 노동자들의 세계를 안으로부터 제대로 다룬 바가 없으며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연애하는 여인들』 제17장에서 보듯이 당대의 노동운동이 제랄드식의 기술지배에 편입되고 말았다는 저자 나름의 판단

24) 예컨대 위의 *The Meaning of Contemporary Realism*, “The Ideology of Modernism”, 27면, 31-5면 등 참조.

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반세기 이후 마르쿠제(Herbert Marcuse) 같은 사람의 선진공업사회 분석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선견지명을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쿠제의 비판이 일시적 현상을 지나치게 모면화했다는 반박도 가능한만큼 로렌스의 진단도 그것 자체로서의 적합성을 신중히 담아 보아야 할 것이다. 애근대 이 소설에서 제랄드는 더 말할 것 없고 제 9 장("Coal-Dust")이나 제 26 장("A Chair")에 단역으로 나오는 서민들도 결코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롬펜프롤레타리아트에서 새 역사의 기틀을 찾는 식의 空想主義를 로렌스는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로렌스의 기술비판이 오해될 또 하나의 소지는 『연애하는 여인들』에서 작가가 제랄드를 두고 거듭 그러듯이 기술시대의 문제를 서구인 내지 백인들의 인종적·종족적 숙명처럼 취급하는 경향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대신 인종적 신화나 비과학적 숙명론으로 그 핵심을 흐려놓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감안할 점은, 우선 로렌스가 인종의 운명을 들먹이는 것이 백인종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속된 인종주의와는 정반대로 제랄드의 역사적 실패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명적' 실패도 따지고 보면 제랄드라는 계성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의 독특한 실패이며 같은 백인인 비킨이나 어슐라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술시대에 대한 로렌스의 물음이 한편으로 당대의 노동운동에 냉담하고 다른 한편 영국인 내지 서구인의 인종적 운명에 대한 낯다른 관심으로 차 있다는 이 두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야기는 또 한번 달라진다. 현대사회의 흐름에 대해 이중으로 비과학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는커녕 이것이야말로 기술지배의 구체적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류역사에서 기술의 지배는 애초에 특정한 사회체제——무엇보다도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통해 구현되었듯이 특정한 나라와 민족들이 앞장서서 실현해온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서양인, 특히 유럽 북서부의 몇몇 민족들의 집단적 운명과 특별히 밀착된 현상이다. 기술지배의 온갖 업적들이 그렇듯이 그에 따른 인간소외의 구체적 양상도 그 직접 담당자들의 인종적·민족적·문화적 여러 특징들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기술지배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구분이 지배민족 내부의 계급적 모순보다 중요해진 단계에서는 그러한 특징들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실을 도외시한 '과학적 인식'은 아직껏 전통적 서양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제랄드의 운명이 기술의 지배라는 세계사적——하이메기의 표현을 빌면 존재사적——필연성의 일환일 뿐 아니라 서구문명 특유의 한계를 반영한다는 결론은 제 3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서구사회에서 기술의 예찬자든 반대자든 또는 '인간주의적'

개량론자들 크게는 공업화에서의 선진성을 기화로 식민지를 만들고 후진민족을 수탈하는데 이바지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영국인으로서 또는 서구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이 큰 몫을 해왔다. 서구내의 '진보세력'이라 해서 반드시 덜 제국주의적이거나 덜 일종주의적이지도 않았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의 자유론도 대영제국을 통한 영국적 가치의 전파라는 제국주의의 이념으로 이어지는 편이 있었다. 기술지배의 다른 일면인 자기소외를 이겨내지 못하는 제랄드의 운명에는 이러한 서구인 공통의 경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슬라가 고집하는 '사랑'의 문제와 한창 써뒀던 무렵의 버킨이 이런 생각을 하는 대목이 있다. (XIX, 285 이하) 즉 인간의 경험이 그 진정으로 인간다운 온전함을 잃은 댓가로 어느 한가서 방향으로만 구도로 세련되고 심화되는 것이 가능함을 버킨은 문득 깨닫는 것이다. 언젠가 그가 보았던 서부 아프리카의 토속 조각품이 말해주듯이, 한 종족의 삶에서 감각과 양명한 정신의 관계가 깨어진 뒤로 수천년에 걸쳐 관능적 경험만이 심화되고 심화되어 인식과 표현의 어떤 극치에 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결정적 붕괴의 순간이 "우리가 삶이나 희망과의 연결에서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고 온전한 존재로부터, 창조와 자유로부터 탈락하여, 순전히 관능적인 압이라는, 와해의 신비에 잠긴 인식이라는 길고 긴 아프리카적 과정으로 떨어져 들어가는"(286면) 영혼의 죽음이 자신의 내부에서도 압박해 있다는 느낌을 맞본다. 물론 백인종의 경우 그 방식은 다를 것이다. 북극의 얼음과 눈을 배경으로 갖는 그들은 차디찬 추상적·과괴적 지식의 신비극(a mystery of ice-destructive knowledge)을 완수하리라는 것이다.

버킨은 제랄드의 일을 생각했다. 그는 파괴적인 절망의 신비극에서 완성된 북쪽나라의 이들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흰 악귀(惡鬼)의 하나였다. 그러면 그는 이러한 지식, 이 '얼음의 지식'이라는 유일한 과정, 완전한 추위에 의한 죽음으로 죽어갈 운명인가? 그는 흰색과 눈 속으로 모든 것이 와해되리라 하는 조짐이요 절령(傳令)이란 말인가? (XIX, 287)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버킨은 겁이 난다. 또한 피곤하기도 하여 갑자기 마음을 돌려먹는다. 삶의 길, 자유의 길, 사랑을 하되 순수하고 온전한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 있다고 결심하고 만다. 이제까지의 명상이 철학적 이론의 절계였다면 이러한 갑작스런 마음의 돌이킴은 논리의 비약이 되겠지만, 철학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제랄드가 못가진 버킨의 생명력이요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의 발현인 것이다.

어쨌든 제랄드는 알프스의 눈 속에서, 그것도 버킨의 제의를 물리치고 구드룬과 사랑 아닌 사랑에 집착하다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동사함으로써, 버킨의 예감이 적중하고 만다. 이것이 너무나 편한 알레고리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러한 절망까지의 과정이 심리적으로도 박진감있게 형상화되어 있을뿐더러 제랄드의 실패가 그가 백인이요 서구인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버킨이 제기하는 '의형제'

문제만 하더라도 제랄드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 서구인 특유의 한계이다. 구미의 많은 비평가들이 버킨의 이 제의를 우습게 본다는 사실도 실은 그러한 한계의 표현으로서, 이 짙 역시 제3세계의 독자에게는 훨씬 분명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제3세계의 나라들이 아직 근대화가 덜 되어서 구식 의형제들의 세계에 좀더 가까운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이는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사라질 '낙후된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선진국 독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제3세계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공업화·기술화의 과정과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것이 선진국의 지배적 의식보다 탁월한 현실인식이요 작품이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업화로 제기되는 정치·경제·사회·기술적 여러 문제가 각 민족의 역사마다 상당히 다르듯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인간해방의 가능성도 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이것은 공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그 나라나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범지구적 규모의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서는가에 따라 해당지역 산업화의 객관적 여건도 다르고 그 성공의 비결도 달라지는 것이다.<sup>25)</sup> 그리하여 한 사회대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발 자본주의국들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분화 과정이 공업화의 절대적 여건으로 작용했던 반면, 후발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로 오면 좋은 나쁜 전통적 유대의 보존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욱 뒤떨어졌던 소련의 근대화에서는 '사회주의적 단결'이라는 그들 나름의 구호가 크나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오늘날 제3세계의 대다수 국민들의 경우로 오면, 공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합리성을 습득하는 작업과 버킨이 말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다수 대중이 봉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는 작업을 병행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자주적 근대화의 성패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후진국의 특수성'을 발견하기보다 현대기술을 통한 역사변혁을 정치·경제적으로 주도하는 문제와 인간이 '기술의 본질'에 좀더 근원적으로 열려진 자기존재를 이룩하는 문제가 원래부터 동일한 과제임이 제3세계의 대두와 더불어 그만큼 더 뚜렷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싸움에서 세상의 제랄드들은 정녕코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흰 악귀들'처럼 엄청난 힘을 조지하고 행사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실업계 거물'만이 아니고 기술시대 서구인 기의 모두를 휘감는 일종의 민족적·인종적 운명의 규모에 다다랐음을 인정할 때, 버킨과 어슬라의 고립무원한 처지도 훨씬 잘 이해된다. 제랄드의 '가대하고 완벽한 체제'에 가담한 노동자들에 좀더 큰 신뢰와 애정을 보

25) Ernest Gellner, 1964,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 Nicolson, 제 8 장 "Nationalism"에서는 산업화의 이러한 시차를 둔 확산이야말로 민족주의라는 현상의 객관적 근거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특히 同書 166면 참조.)



이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것은 제 3 세계의 입장에서는 우스운 일이며, 그렇다고 제 3 세계를 위한 투사로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일이다. 우선은 훌쩍 떠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이라도 힘겹게 이룩된 진실을 지키고 키워나가겠다는 결단이 『연애하는 여인들』의 문맥 안에서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의 일부로 사물을 소유하는 생활의 질곡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이다. (XXVI, 401-2 참조) 다만 이것은 제 3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적 소유의 문제가 일단 해결된 그들의 경우에 국한되는 이야기요, 흔히 ‘존재’와 ‘소유’를 대비시켜 후자를 배격하는 철학적 논설이나 종교적 설교들은 가진 자들의 자기변호로 되기 쉽다. 광부들의 평등 주장에 대한 로렌스의 비판도 자칫하면 그러한 일반론과 혼동되기 쉬우나, 그들의 기계적 평등론조차도 기독교적 이웃사랑으로 위장된 토마스 크라이치의 불평등주의 앞에서는 옳은 것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허마이오니의 ‘정신적 평등’ 주장에 대한 버킨의 맹렬한 반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VIII, 115-6 참조), 로렌스가 ‘소유’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꿈꾸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변호하는 허위의식과 무관하다.<sup>26)</sup> 오히려 서구 사회의 한계 안에서만 재화가 평등하게 분배되면 그만이라는 입장보다는, ‘밤이 하늘’이라는 명제가 민중문학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제 3 세계의 상황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자세인 것이다.

[2] 『연애하는 여인들』에서 저자가——주로 버킨의 입을 통해서지만 때로는 어술라도 동원하여—— ‘인간’ 자체, ‘인류’와 ‘인간적인 것’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도 제 3 세계의 위치에서 한번 제대로 세겨들을 필요가 있다. 로렌스는 역시 반인간주의자요 반문명주의자라고 성급히 결론지을 일도 아니거니와, 작중인물이 그때그때의 일시적 기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한 표현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리라 본다. 이것은 버킨이나 어술라가 일상적으로 단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뿐만이 아니고, 무언가 이제까지 그들의 세계에서 통용되어온 인간 및 인간성의 개념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올 뜻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 전통적 ‘인간주의’ 불 극복함으로서만 참다운 인간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오늘의 세계사적 상황과의 연관 아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형이상학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본질’이 아무리 고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인간됨의 참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하이데거의 생각은 이 문제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형이상학적 주장으로서의 ‘인간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비인간화의 옹호가 되지는커녕, 도리어 인간의 인간성(humanitas)을 더욱 높이 설정하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늘다는 것은 인간을 ‘존재자의 주인’(der Herr des Seienden)으로서의 높은 지위에 놓기보다 ‘임[存在]의 파숫꾼’(der Hirt des Seins)으로서의 겸허한 위치에서 진정한 위엄과 위대성을

26) 평등의 문제에 대한 로렌스의 이론적 입장은 *Phoenix*에 실린 에세이 “Democracy”에 명쾌하게 개진되어 있다.

찾는다는 것이다.<sup>27)</sup> 『연애하는 여인들』에서 보면 실업계 거물 제랄드의 사업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인간주의적 정점으로 끌어올린 업적이다. 그것은 대상이자 자원으로로서의 자연과 맞선 주체로서의 인간이 드디어 지구의 주인이요 만물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역사적 순간이며, 토마스 크라이치의 인도적 자본주의와 광부들의 경제주의적 사회주의가 일거에 지양된 상태이다. 또한 뒤로 갈수록 어술라보다 오히려 제랄드와 구드룬이 주장하는 ‘연애’의 복음도 형이상학의 창시자 플라톤의 『향연』에서 비롯하여 서양 인간주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되어왔던 것이다.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자신의 노력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비킨이 인류의 멸종을 상상하며 오히려 기가서 어떤 위안을 얻곤 하는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일시적 염세감정만은 아니며 그렇다고 반인간적 도착증세도 아닌 것이다. 마지막장에서 제랄드가 동사한 장소를 찾아보고 비탄에 젖은 비킨은 다시 한번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돌아온다.

그는 돌아섰다. 심장이 터져거나 마음을 쓰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뿐이었다. 차라리 마음을 쓰지 말 일이었다. 인간과 우주를 만들어낸 신비가 두잇이건 그것은 인간적이 아닌 신비였다. 그나름의 목표가 있는 것이요 인간이 기준은 아닌 것이다. 그 기대하고 창조적인 미인간적 신비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자기 자신과만 씨름하고 우주와는 다투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XXXI, 538)

그러면서 비킨은 ‘하느님도 인간이 없으면 안되신다’는 어느 유명한 종교인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큰 위안을 느낀다. 옛날에 멸종한 생물들처럼 인간도 창조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때 이룬 대치할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리라 생각해 본다.

비킨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위안이 되었다. 인류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스스로 당면해버린다면, 시간을 초월한 창조적 신비는 어떤 다른 존재물, 더욱 아름답고 경이로운 어떤 새롭고 아름다운 거리를 물러내어 창조의 실체를 계속토록 할 것이었다. 결코 빈이 끝나는 일은 없으리라. 창조의 신비는 바닥이 없고 실수도 없고 다할 줄 모르는 영원한 것이었다. [중략] 인간이라는 사실은 창조적 신비의 가능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신비로부터 끝마르 자신의 맥박이 고통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원진이요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이었다. 인간이나 인간이 아니냐는 것은 문제가 안되었다. 완전한 맥박은 이를지을수 없는 존재, 네어나지 않은 기적적인 씨앗들로 고통치고 있었다. (538-9).

27) M. Heidegger, 1967, *Wegmarken*, Frankfurt a. M.: Klostermann, "Brief über den 'Humanismus'", 161년 및 172년 참조. 하이데거의 이런 발언은 단순히 인본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다운 인간성을 '하느님의 아들됨'으로 설정하는 것도 결국은 더없이 고귀한 '인간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설정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머물기 쉬운 것이다. 굳이 종교적 해석을 찾는다면, 불교에서 인간의 참 인간됨과 그 존엄을 '인간성'보다 인간의 佛性에서 찾되 불성 자체는 딱히 '있는 것'(有)으로 설정하지 않는 점이 하이데거의 생각에 훨씬 가깝다 할 것이다.

'비인간적 신비'(non-human mystery)에 대한 이러한 명상이 자신의 인간성이나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버킨은 여기서 창조적 삶의 길을 찾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제랄드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는 여인들』은 실제로 서구적 인간주의의 영역에 머무는 최고 수준의 노력보다 더욱 본질적인 탐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려면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과 비교하는 것으로서는 안되고, 예컨대 토마스 만의 대작 『파우스트 박사』(Doktor Faustus)처럼 모더니즘의 문체와 대결하면서 스스로 휴머니즘과의 연계를 고수하는 작품과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극히 단편적인 고찰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파우스트 박사』 역시 서구문명에서 이제까지 보존되어온 '감각과 양명한 정신의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 현대 서구의 전위적 예술을 그러한 붕괴의 산물로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음악가인 주인공 아드리안 레비킨(Adrian Leverkühn)은 『연애하는 여인들』 뒷부분에 등장하는 조각가 뢰르케(Loerke)와는 달리, 그러한 붕괴 이후의 인물이 되기보다 그것을 스스로 체험했고 최후의 고백에서 "땅 위의 일이 좀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빈틈없이 정신을 쏟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 산 토양과 관련된 조화가 다시 준비되는 질서가 사람들 틈에 어둡되도록 그 필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해내는 대신, 인간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지옥의 만취상태로 뛰쳐 나온다"<sup>28)</sup>고 참회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뢰르케보다 제랄드와 대비시키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는 인물이다. 제랄드 역시 처음부터 숙명적인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고 끝내 영혼의 붕괴로 탈락하고 말지만, 뢰르케와 구드런의 다음 단계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결국에 가서는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광극적 뜻과의 일치에 대한 필요성으로 구속된다는 한계가 지어져"(XXX, 509)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예술가로서 레비킨의 천재적 업적은 일단 그러한 계약을 펼쳐버린 데서——그런 의미에서 옛날의 파우스트 박사처럼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데서——나온다. 이러한 그의 생애를 담은 전통적 인간주의 자이자 직업적인 인문주의자(고전학자·교사)인 친구 쟈이트블롬(Serenus Zeitblom)의 애정과 두려움 섞인 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현대정신의 비인간성·악마성의 문체에 대해 저자의 그 유명한 '아이러니'를 절지하며 단정적인 태도만큼 피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레비킨의 예술이 한편으로는 히틀러로 대표되는 현대 유럽문명의 야만성과 일치하면서 다른 한편 그것이 서구적 문화전통의 어떤 극치를 이룬다는 복합적인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로렌스가 제랄드, 구드런, 뢰르케 등을 보는 태도는 훨씬 명료하다. 이들 인물이 결코 더 평면적으로 환상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욱 심층적이고 리얼리즘에 충실하게 그려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서구 휴머

28) Thomas Mann(1947), *Doctor Faustus*, tr. H. T. Lowe-Port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47장 479면 참조.

니즘 전통 중 최고·최선의 가치들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 자체를 일찌기 태동시켰고 이제 그 근본적 극복을 요구하는 역사를 전개시키는 ‘비인간적 신비’에 두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제랄드는 그 역사적 전형성에 있어 아드리안보다 결코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인물이 되지 못한다. 토마스 만의 짜이트블롬 같으면 찬탄해야 좋을지 끔찍하다 해야 좋을지 몰랐을 제랄드의 ‘숙명적’ 성격이 버킨에게는 한마디로 ‘권태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XVI, 232-3 참조) 실제로 아드리안의 운명을 두고도 우리가 찬탄과 공포 사이를 오락가락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살 길을 달려 찾고자 한다면, 연민과 공감을 일단 지불할 만큼 지불한 뒤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시하고 권태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20세기 독일 시민제급 최대의 작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일는지 모르나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고도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구적 교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서구문화의 중심부에서 배출된 로렌스 같은 탁월한 작가의 본보기가 말해주듯이, ‘교양’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과 깨달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면, “교양(Bildung)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은 교양없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코 물음직한 것이 어느날엔가는 모든 사물과 운명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는 세계시대의 조짐들이 눈에 띄게 되기 때문이다.”<sup>29)</sup> 이러한 시대가 제대로 열릴 때 새로운 깨달음에 근거한 새로운 교양이 확립될 것이다. 그 속에는 구시대 동·서양의 교양이 당연히 반영되었지만 우선은 낡은 교양전통에 대한 집착, 특히 아직도 스스로 보편성을 외쳐대고 있는 서구적 교양과 서구적 인간주의에의 충성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게 마련이다.

『연애하는 여인들』의 물음이 제3세계적 인식을 향해 열려 있는 것처럼, 로렌스 자신이 제1차대전 종말 이후의 방랑생활을 통해 서구문화권 이외의 세계를 탐방하며 이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쓰기도 했다. 그 중 가장 야심적인 작품이 멕시코를 무대로 한 장편 『날개돋힌 뱀』(The Plumed Serpent, 1926)인데,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로렌스가 아무리 뛰어난 작가이고 이 작품에서도 그 천재적 소질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다고 하지만 『연애하는 여인들』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된 시대에 작가가 임의로 대안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바로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서구적 인간주의의 극복을 모색하는 정당한 노력이 ‘비인간적 신비’ 앞에서의 신실한 기다림의 자세를 버리고 (1930년대 초 하이데거의 일시적인 나찌즘 동조와 마찬가지로) ‘반인간적인 것’의 옹호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고 만다. 제3세계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 시대는 제3세계 민중들 가운데서 때가 차고 깨달음이 성숙했을 적에 그들 자신의 방식에 따라 열리는 것이지, 서구인들——설혹 그가 가장 선각자며 선의에 찬 지식인이나 작가일

29) *Vorträge und Aufsätze*, “Wissenschaft und Besinnung”, 69면.

지라도——의 필요에 맞춰 그들의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는 법이다.

어쨌든 이러한 탐구와 시련을 거쳐 만년의 로렌스가 유럽으로 되돌아오고 『채털리부인의 연인』에서 인간 본능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스스럼없이 찬미하고 나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현상이다. 또한 이 동안에 그는 예술적으로 빼어난 중·단편들과 시·수필·평론들을 수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기술시대의 참뜻을 묻고 새로운 창조적 삶의 길을 찾는 기본적인 작업에서는 『무지개』와 『연애하는 여인들』의 성과에서 뚜렷이 더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작가의 개인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소설을 통해 로렌스가 기술의 본질을 물음에 있어 제3세계의 시대가 미쳐 열리기 전의 서구작가로서 도달가능했던 데까지 거의 도달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 다음 단계의 업적은 그것이 유럽의 작가에 의한 것이든 아메리카나 소비에트 작가에 의한 것이든, 로렌스의 시대에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던 제3세계적 의식을 수용함으로써만 새로운 깊이와 높이에 다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업적이 이루어진다면 해도 로렌스의 물음이 남아버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의 시대 그의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진리의 물음이요 진실의 드러냄이며, 다음 시대의 작품도 그러한 물음과 드러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알게모르게 앞서 이룩된 작품과 서로 주고 받는 관계에 서게 될 것이다.

## 《Abstract》

A Study of D. H. Lawrence's *Women in Love*

Nak-chung Paik

This paper proposes to study *Women in Love* as a novel that questions the meaning of the age of technology. At the same time, it attempts to explore a "Third World" perspective in our reading of European literature. Such a perspective would naturally have to be more than a defense mechanism on the part of Third World readers, and contribute to a truer understanding of the work in question.

Two assumptions underlie our reading of *Women in Love*. First, a work which obviously falls short of any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industrial-technological civilization may nevertheless question its meaning in an essential manner, because "the essence of technology" (in Heidegger's words) "is not anything technological." Secondly, it is a work that addresses itself to the real questions of the real world in a "realistic" way—only exploring a dimension of reality neglected by even the greatest novelists of the previous century.

The essential meaning of technology is questioned most explicitly through the figure of Gerald, the "industrial magnate", especially in Ch. 17. His death brings to light *the* danger for man in the technological age. But the story of the more successful pair, Birkin and Ursula, cannot be fully appreciated, either, unless see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orld-historical destiny that Gerald represents. Much critical incomprehension as to the artistic rightness of particular passages or episodes may be traced to this failure.

To many Western readers, especially those who are termed "progressive" within the limits of the Western world, suggestions of a racial destiny in Gerald present an added difficulty.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Third World, however, these merely reflect the actual conflation of the destinies of European races with a particular (the earlier) phase of global rule of technology. Gerald's failure does imply adverse judgment of the Western man in that phase but no blanket condemnation, for it presents not an allegory of fatality but a realistic character alongside others of the same race pointing to a different course. Birkin's search for "another kind of love" also takes on a fuller meaning in the Third World context, not because the more "backward" nations remain (as yet) closer to the

days of *Blutbrüderschaft* but because in *their* encounter with technology as a global destiny the achievement of some such comradely love on a massive scale becomes as much a key to survival and freedom as any technical ability to duplicate Gerald's industrial accomplishment.